

늘어난 7000억 중 5000억 이상 줄여야 예타 재조사 피해

<예비타당성>

건설 공법 변경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절감 초비상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수천억원 증가되면서 광주시가 난관에 봉착했다. 건설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이 3000억원에 이르는데다,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 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7000억원이나 늘면서 추가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가 최대 관건이 됐다.

특히 늘어난 사업비도 부담이지만, 우선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부상했다. 사업비가 애초 정부 승인액 2조93억원(2014년 기준)보다 20%가량이 늘면서 최종 예상 사업비가 2조3000억원을 넘어선다. 푸른길 훼손 최소화 등의 민원 해결 비용 및 각종 제안 사항 등의 4000억원 가짓 포함하면 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종 예상 사업비가 정부에서 애초 승인한 사업비의 20%를 넘어서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예산확보도 쉽지 않은 만큼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민원 및 제안사항 해소에 필요한 4000억원의 고사할 수순하게 건설방식 변경으로 추가 공사도시설도 2호선 사업비 3000억원 중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설계경쟁성 검토(VE)와 각종 민원 및 제안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5년 도시설도 2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광주시가 시민들의 각종 민원 및 제안 수용을 최소화해 사업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정부 승인액 20% 초과때 재조사

기간 늘어 사업 포기해야 할 수도

푸른길 공원 훼손 최소화 등 민원

시민사회단체와 또 다른 갈등 소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푸른길 공원 훼손 최소화하고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지하주차장 건설 등의 민원 때문에 시민사회와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원가절감을 위해 우선 설계경제성 검토 영역에 최대한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다른 광역시 지하철과 달리 경량전철로 설계하다 보니 설계기준 등이 미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გადა 설계된 부분을 찾아내 이를 절감하는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대한 공사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또한, 새로운 공법도 예외주시하고 있다. 저심도 방식 건설로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신기술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됐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문범수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원가절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하지만, 충분히 원가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1월께 원가절감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만큼 11월말께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정비 마친 옛 전남도청앞 분수 화려한 조명

17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가 재정비를 마치고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회 정치개혁특위 결정 더 못 기다린다”

중앙선관위 획정위 18~19일 회의
지역구 수·선거구 획정 기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19일 서울 관악구 선거구획정위원회실에서 마라톤 회의를 열어 지역구 의원 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에
 획정 기준 등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획정안의
 법정 제출 기한이 오는 10월13일로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인구 통계 기준일을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 사무 관리 기준이 되는 최근 인구 통계 적용 규정에 따라 올 8월31일로 정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총 정수나 비례대표 정수에 관한 부분은 이날 회의 의제로 올

리지 않을 방침이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수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국회를 향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넘겨달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은 총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 수를 최소 현행대로 246개로 유지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총 정수를 현행대로 하되 비례대표 수를 지금보다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를 아우른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구 수 감소를 우려, 불가피할 경우
의원 정수 증대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
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신당, 20일 창당 선언...야권 재편 시동

가치·일정 등 제시...영입 인사 공개는 유동적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 의원은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당 창당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표 등 당내 주류 그룹의 혁신안 ‘밀어붙이기’에 비주류 진영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천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은 추후 야권 재편에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제도를 넘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적쇄신 내용을 담은 마지막 혁신안 발표를 남겨둔 점도 관심사다. 여기서 비주류 인사들을 겨냥한 ‘중진퇴진론’이 나온다면 신당의 원심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일방적인 인적쇄신안이 다시 제시될 경우, 신당 바람에 힘입어 비주류의 ‘탈당 러시’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천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신당에 참여할 인재풀이다. 천 의원의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전후에 ‘뉴 DJ’를 상징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가진 인사들이 신당에 참여한다면 신당 바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풍’으로 위력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지권 주변 인

사들이나 아마추어급의 인사들의 나열에 그칠다면 신당 바람은 ‘찾잔속의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천 의원 진영에서는 이날 1차 인재풀을 공개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추석 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소위 인지도와 참신성을 함께 갖춘 인사들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의 의원 측 핵심 인사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관료 그룹은 물론, 법조계, 체육계, 문화계, 경제계, 시민사회,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신한 인사들의 영입을 1차로 마무리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배운'광주안과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용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배운'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 ● ● ● ●

새생명탄생



시엘병원

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